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박한철 소장 퇴임에 따라 오늘부터 41일간... 박 대통령 측 헌재 흔들기·후임 재판관 인선 움직임 '관심사'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31일부터 사실상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체제에 들어오게 된다.

오는 3월13일 퇴임 예정인 이 재판관 후임부터 인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헌재가 이 재판관 퇴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선고할 경우 집단 사임까지 불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에 소환된 김기춘·조윤선·김경숙·장시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성적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의 과도 체제가 탄핵심판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발발 없이 견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소장 퇴임식이 31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되면 헌재는 곧바로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들 내에서도 이미 선임인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결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고, 7일 이내에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헌재 규칙에는 권한대행의 임시선출과 일주일 내 정식 선출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내일부터 이 재판관 체제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사건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도 "이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 조금 남았지만, 2013년에 박 소장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동안 권한대행을 맡아 본 경험이 있고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수명재판관으로 준비절차를 담당했다"며 "사건 파악도 주심 재판관 못지않게 이뤄져 곧 퇴임이 예정돼 있다고 권한대행을 맡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소장이 이 재판관 임기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선고와 관련한 '2달 3초' 가능성은 접수 당시부터 거론된 얘기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 체제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는 데다,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는 2월 1일과 7일, 9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중대 결심 운운하며 전원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다른 인사는 "내일부터 이 재판관 퇴임까지 41일 정도 남았는데 이 재판관과 헌재를 타깃으로 한 박 대통령 측의 '흔들기'가 계속 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이 서로 맞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헌재와 박 대통령 측 간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하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집단 사임을 할 경우 심판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헌재가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당내 경선 룰 논의에 불참하며 야권공동정부 구성을 주장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그리고 저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별도의 답변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그는 이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거냐는 질문에 '당연한 얘기'라며 "국민들 요구가 낮은 질서를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이냐 그 점에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진로와 관련, "개인의 준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서울시장을 두 번 어렵지 않게 뒀던 것 때문에 아마 정치란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그런 것도 많이 반성하고 새로 성장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뉴스

민주당 "검찰 정리하겠다는 차, 국민과 전쟁 선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과 언론 정리' 발언과 관련, "민약 보도대로 정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검찰 숙청과 언론 탄압을 선언한 것이며, 국민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된 원인을 박근혜 게이트를 폭로한 한 언론들과 이를 방어하지 못한 사정당국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니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을 촛불로 밝히려 자신의 탄핵을 촉구했던 국민들에 대해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에게서 죄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다"며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신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당연하게 여기는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언론의 과잉되거나 잘못된 것에 있어서 탄핵이 기각 되면 정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정리) 될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

최순실, 특검팀 소환 요구에 다시 불응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3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다시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이르면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

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최씨를 지난 25, 26일 조사했다.

최씨는 25일 특검팀 출석 과정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괴성을 질렀다. 이후 이어진 특검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정재 변호사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최씨가 소환에 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기소

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을 30일 재판에 넘겼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직권남용 관리행위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장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특검보는 "문화계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 문체부 직원 부당 인사조치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추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기소 시에 정리해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8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합성을 태권도원으로!

73억 세계인들의
열기를 무주로!

2017 MUJU WORLD CHAMPIONSHIPS TAEKWONDO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 2017년 6월 22일~30일 | 장소 : 태권도원